

産業動向

레미콘 産業動向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95년 건설경기 회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95년 전체 국내총생산은 9.3%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95년 상반기 16.7%의 신장세를 보였던 국내건설공사 수주액(200대 대형건설업체 기준)은 하반기에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연간 수주액 규모는 44조 5,546억원에 달하여 전년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부문에서는 공장, 창고 및 사무실 등의 수주호조로 전년대비 16.2%의 증가를 보였고, 토목부문에서는 토지조성 상하수도기계설치 등의 수주 호조로 17.3%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수요자별로 보면 민간부문은 전년대비 22.6%가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15.4%증가에 불과했다.

건축허가면적은 95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 대비 16.2% 및 36.3%의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 들어와서는 25.6% 및 12.2%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으로 살펴보면 1억1,733만㎡로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표준건축비의 인상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큰폭의 증가를 보인 반면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비주거용 건축 허가면적은 하반기에 들어와 설

〈표 1〉 건축허가면적 동향

(단위 : 천㎡, 전년동기대비 %)

	건축허가 면적(천㎡)					건축허가 면적(%)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1993	117,790	69,299	48,491	24,766	11,375	24.5	26.7	21.4	31.3	15.2
1994	116,222	63,387	52,835	27,501	13,293	-1.3	-8.5	8.9	11.0	16.9
1995	117,327	62,614	54,713	28,549	13,727	1.0	-1.2	3.6	3.8	3.3
94Q1	21,974	10,109	11,865	6,502	2,948	-24.0	-41.0	0.8	-14.4	51.4
Q2	27,190	13,572	13,618	7,384	3,147	-12.0	-25.3	7.0	19.6	-11.9
Q3	30,724	17,196	13,528	6,789	3,701	14.1	12.4	16.4	24.4	30.5
Q4	36,333	22,510	13,823	6,826	3,497	17.0	20.6	11.7	23.3	15.8
95Q1	25,533	13,741	11,792	6,884	2,990	16.2	35.9	-0.6	5.3	1.4
Q2	37,054	18,909	18,145	9,746	4,436	36.3	39.3	33.2	32.0	41.0
Q3	22,849	11,763	11,086	5,349	3,056	-25.6	-31.5	-18.1	-21.2	-17.4
Q4	31,891	182.01	13,690	6,610	3,245	-12.2	-19.1	-0.9	-3.1	-7.2

〈표 2〉 건설투자 동향 및 전망

(단위 : 90년 불변 10억원, 전년동기 %)

	건설투자				토목건설		
		건물건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건설	토지개발	
1994 ^p	50,637.1	30,679.1	16,941.3	137,387.9	19,958.0	17,048.6	2,909.4
	4.6	2.3	-0.3	5.6	8.2	7.4	13.1
1995 ^e	55,433.5	33,701.6	18,116.7	15,584.9	21,731.9	18,214.4	3,517.5
	9.5	9.9	6.9	13.4	8.9	6.8	20.9
1996 ^f	59,274.2	34,195.6	17,735.4	16,460.2	25,078.6	21,064.4	4,014.2
	6.9	1.5	-2.1	5.6	15.4	15.6	14.1
95 Q1 ^p	10,999.4	7,965.9	4,161.3	3,804.6	3,033.5	2,338.9	694.7
	8.0	5.8	-0.6	13.9	14.0	5.9	53.8
Q2 ^p	13,933.2	8,762.9	4,851.1	3,911.7	5,170.4	4,273.5	896.9
	8.3	11.8	9.2	15.2	2.9	0.7	14.7
Q3 ^p	14,519.9	8,821.6	4,826.0	3,995.6	5,698.4	4,962.7	735.6
	12.3	15.6	14.5	1.7	7.5	5.9	20.0
Q4 ^f	15,980.9	8,151.3	4,278.3	3,873.0	7,289.6	6,639.3	1,190.3
	9.0	6.1	4.5	8.0	12.2	12.3	12.0

주 :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광장』 창간호 참조.

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3/4분기 18.1%, 4/4분기 0.9%가 감소되었다.

건설투자동향을 회고해 보면 95년 1/4분기에 소폭 증가를 보였던 주거용 건물은 2/4분기와 3/4분기에 들어와서 9.2% 및 14.5%의 증가를 보인 반면, 비주거용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토목분야는 1/4분기에 14.0%가 증가한 반면 2/4, 3/4분기에는 각각 2.9%, 7.5%가 증가하여 약간 둔화된 성장 추세로 나타났다.

95년 레미콘 산업 동향

94년 493개업체 610개공장에서 10,600만m³를 생산한데 비해 95년도에는 25개업체가 증가한 516개 업체 653개 공장에서 11,480만m³를 생산하여 전년에 비해 7.6%증가하였는데, 94년도 17.0%의 증가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

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으로 주택 경기의 침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둔화에 기인된다고 본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4천936만m³에 비해 11.2% 증가한 5천489만m³의 레미콘을 생산하였다. 레미콘 수요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아파트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진입하고 엔고의 영향으로 경기활성화에 따라 공장 등 설비투자의 증가가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3월 이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는 매일 1천만m³가 넘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안정된 수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하반기에는 전년에 비해 4.5%의 증가에 불과했다. 특히 3/4분기에는 미분양 주택의 증가와 삼풍백화점 붕괴등으로 전년동기 2,643만m³에 비해 2.8%가 감소한 2,570만m³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에는 SOC투자의 증

〈표 3〉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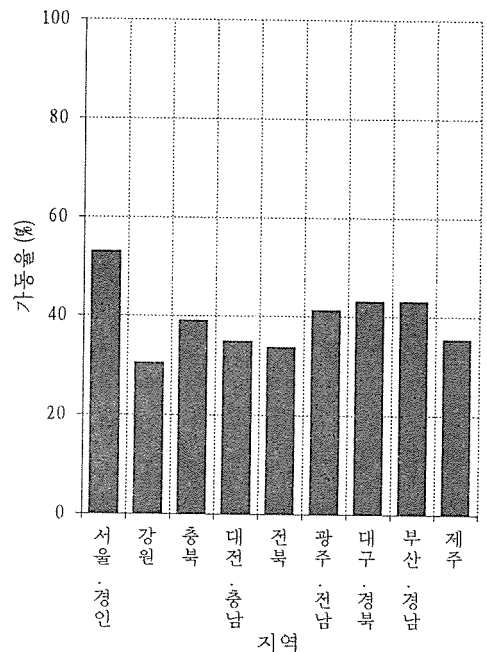
구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생산능력(B/P)		믹서트럭(R/T)	가동율
			기수	천m ³ /년	보유대수(대)	
서울경인	108	146	231	231	80,640	53.0
강 원	58	66	72	72	17,540	30.6
충 북	41	42	50	50	13,720	39.1
대전충남	67	78	101	29,778	1,800	35.0
전 북	37	42	55	15,600	898	33.8
광주전남	59	72	87	24,600	1,608	41.3
대구경북	82	95	123	35,548	2,062	43.2
부산경남	89	99	145	42,718	2,914	43.2
제주	13	13	17	4,428	260	35.5
계	518	653	881	264,572	18,548	43.4

※ 1) 전국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2) 연간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기준임.

가와 표준건축비의 조기인상으로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9.5%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으며, 민수 물량은 12.9%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레미콘 판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남지역으로 전년도에 8,988천m³ 비해 12.93%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지역 12.62%(5,365천m³), 전북·지역 12.03%(5,271천m³), 대구·경북지역 11.52%(15,365천m³) 순으로 10% 이상이 증가하였고 강원 8.51%, 부산·경남 8.21%, 대전·충남 7.3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경인 4.1%, 제주 0.1%의 소폭증가에 그쳤다.

연간 2억6,452만m³의 생산능력에 비해 가동율은 43.3%로 전년도에 비해 약 2%의 가동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94년도와 비교해 볼 때 37개의 공장이 늘어난만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인지역은 108개업체 146개공장에서 80,640천m³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53%의 가동율을 나타내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가동율을 보여 주었으며 대구·경북, 전남·경남은 43.2%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원의 경우는 30.6%의 저조한 가동 상태를 보여주는 등 지역별 가동율의 차이가 큰



〈그림 1〉 95년 지역별 레미콘 가동율

것을 알 수 있다.

수요별로 레미콘 생산량을 구분하여 보면 관수는 전년도 2,076만m³를 출하한데 비해 95년에는 1,974만m³를 출하하여 4.9%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97년 공공부문의

〈표 4〉 95년도 지역별 레미콘 생산실적

(단위 : m³)

지역	수요별	1995	1994	증감율(%)	점유율(%)
서울경인	민수	36,979,538	34,184,238	8.2	37.2
	관수	5,760,291	6,872,988	-16.2	
	계	42,739,829	41,057,236	4.1	
강원	민수	4,024,186	3,543,844	13.6	4.7
	관수	1,348,638	1,407,768	-4.2	
	계	5,372,823	4,951,612	8.5	
충북	민수	4,497,379	4,063,072	10.7	4.7
	관수	867,493	700,589	23.8	
	계	5,364,872	4,763,661	12.6	
대전충남	민수	8,784,915	7,980,549	10.1	9.1
	관수	1,637,931	1,727,220	-5.2	
	계	10,422,846	9,707,766	7.4	
전북	민수	4,110,085	3,687,218	11.5	4.6
	관수	1,161,085	1,017,743	14.1	
	계	5,271,170	4,704,961	12.0	
광주전남	민수	8,201,903	7,165,129	14.5	8.8
	관수	1,949,197	1,823,716	6.9	
	계	10,151,100	8,988,845	12.9	
대구경북	민수	12,069,146	10,414,407	15.9	13.4
	관수	3,295,916	3,362,884	-2.0	
	계	15,365,062	13,777,291	11.5	
부산경남	민수	15,294,202	13,704,526	12.1	16.1
	관수	3,175,560	3,364,729	-5.6	
	계	18,469,762	17,069,255	8.2	
제주	민수	1,030,109	1,086,061	-6.5	1.4
	관수	543,524	485,247	12.1	
	계	1,573,633	1,571,308	0.1	
계	민수	94,991,463	85,829,051	10.7	100
	관수	19,739,634	20,765,884	-4.9	
	계	114,731,097	106,591,935	7.6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하철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을 턴키베이스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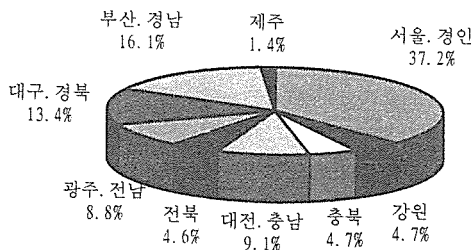
특히 충북, 전북, 제주를 제외한 전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

하철 물량의 감소와 공공부문의 건설공사가 턴키베이스로 전환됨에 따라 16.2%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지역별로 레미콘 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 경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4.1%의 증가에 그쳤다. 관수의 경우 지하철 물량의 감소와 주요공사의 턴키베이스로 전환됨에 따라 16.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민수 물량에서는 경기, 수원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과 일산 포천지역의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되어 8.2%의 증가를 가져왔다. 분기별로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4/4분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해 민수물량이 15.4%의 성장을 가져왔는데 이는 표준건축비의 조기인상과 정부의 공공건설을 4/4분기에 일시에 착공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대구·경북의 경우는 지하철 및 도시고속화 도로 등의 건설로 레미콘 출하량이 12.1%가 증가하였고, 광주·전남지역은 목포의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레미콘의 물량이 증가하였다.

충북지역인 경우 다른지역에 비해 관수 물량이 23.8% 증가하였는데 이는 94년도 이월물량의 증가와 충주지역 및 남부지역의 토목 및 수해복구 물량의 증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관수가 증가한 반면 민수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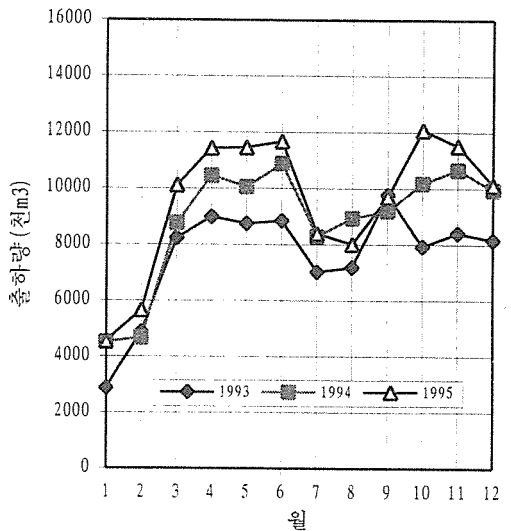


〈그림 2〉 95년 지역별 레미콘 점유율

우리나라 레미콘 생산량에 대한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면 서울·경인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지역로 16.1%, 대구·경북 13.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

인지역은 93년이후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은 미비하지만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지하철공사 및 공단의 설립등 상업용 및 공장용 건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95년도의 레미콘 출하의 특징은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관수물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보다 비주거용인 상업용 건물 및 공장 건물의 증가가 있었고 특히 SOC등 토목분야의 증가가 주류를 이룬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정부공사의 착공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4/4분기가 어느해 보다 높은 성장율을 나타냈다.



〈그림 3〉 월별 레미콘 출하실적 비교

96년 건설경기 전망

96년 1월에 실시한 주택은행 주택건설경기 전망조사에 의하면 96년 1/4분기의 전반적인 주택건설경기는 지난해 4/4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2/4분기에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표준 건축비의 조기인상 및

분양가 현실화 방안의 시행이 기대되고 있고 둘째는 각종 주택관련 규제완화와 미분양 주택에 대한 특별자금 및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정책이 점진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주택구입에 관망세를 보였던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가 증가되어 업체들의 주택건설 여건이 호조되어 주택건설경기가 다소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96년도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2.4%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약 1.5%, 비주거용이 3.5%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금년도에 전체건설경기가 단기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한다는 점과 96년 1월의 건축 허가면적이 3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경기 국면의 하강속도와 폭은 전체 거시경기 및 주택정책 등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6년의 전체 건설투자는 작년에 비해 약 6.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4분기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건축허가 면적은 금년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용 건설투자는 작년에 비해 2.1%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목건설의 경우에는 95년 3/4분기부터 공사의 집중적인 발주로 9조원 규모의 민간자유치외에 금년도 공사의 60%가 1/4분기에 발주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약 14.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에 의하면 9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대비 25.0%가 증가한 17조1,1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공공부문 계약액은 전년대비 63.0%가 증가한 6조1,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부문은 전년대비 10.6%가 증가한 10조9,9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월중 공공부문의 건설계약액은 전년에 비해 2배에 가까운 1조 2,56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해주고 경기급락의 방지차원에서 정부공사를 조기 발주했기 때문이

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액은 1조 9,82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월중 공공건설부문을 공정별로 살펴보면 토목은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가 최근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경기의 연착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중 시행될 정부공사의 총규모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6조원 가량을 1/4분기중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및 부산, 대구 지하철 등 철도시설과 국도 및 고속도로의 확·포장 등과 같은 SOC관련 시설물을 중심으로 투자의 활기가 예상되며 지방자치 단체의 오염·폐기물 처리시설발주가 예상되는 등 전년 2조4,534억 원대비 80.7%가 증가하는 4조4,3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여전히 토목부분이 공공부문 건설경기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은 총선을 앞두고 각종 관공서, 병원, 학교건물 신축이 늘어나고 주택공사와, 지자체의 아파트 발주가 예상되어 전년 1조2,967억 원대비 29.3%가 늘어난 1조6,77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건설부문중 토목은 경기활황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7,610억 원대비 7.8%증가에 그친 8,2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은 표준건축비 조기인상등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공공부문발주 호조로 인한 구축효과가 예상되어 전년 9조1,822억 원대비 10.9%증가하는 10조 1,7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멘트]

96년 시멘트의 수급은 생산량 5,550만톤에 비해 수요량이 약 5,800만톤을 예상하고 있어 약 250만톤 가량의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수요량은 1, 2월에는 별 수요가 없었으나 3월이후 판매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금년 1월 23일자로 석회석을 채광하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표 5〉 국내 건설계약액 동향

(단위 : 억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1-4월			
	96년	95년	전년 동월 증감율	96년	95년	전년 동월 증감율	96년	95년	전년 동월 증감율	96년	95년	전년 동월 증감율	96년	95년	전년 동월 증감율	
총계약액	32,388	23,282	39.1	29,580	21,781	35.8	52,020	43,219	20.4	57,120	48,651	17.4	171,108	136,933	25.0	
공 공	합 계	12,560	4,255	195.2	9,750	6,117	59.4	16,840	9,531	76.7	21,960	17,598	24.8	61,110	37,501	63.0
	토 목	10,245	3,265	213.8	6,669	3,328	100.4	12,880	6,995	84.1	14,540	10,946	32.8	44,334	24,534	80.7
	건축	2,315	990	133.8	3,081	2,789	10.5	3,960	2,536	42.0	7,420	6,652	11.5	16,776	12,967	29.3
민 간	합 계	19,828	19,027	1.0	19,830	15,664	26.6	35,180	33,688	4.4	35,160	31,053	13.2	109,998	99,432	10.6
	토 목	1,953	1,774	10.1	1,342	1,232	8.9	2,010	1,751	14.8	2,900	2,853	1.6	8,205	7,610	7.8
	건축	17,875	17,253	3.6	18,488	14,432	28.1	33,170	31,937	1.0	32,260	28,200	14.4	101,793	91,822	10.9

자 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 거래가격』 참조.

한라시멘트 또한 백두대간 풍수설에 휘말려 석회석 채광이 불투명하고 있어 성수기 시멘트 수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골재]

골재의 수급은 전년도 이월재고량과 허가이월분의 채취가 계속되어 전반적으로는 원활한 수급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경우는 이월량과 금년도 허가 계획량이 계획대로 채취될 경우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충청권은 자체조달 능력이 없는 대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골재의 채취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바닷모래의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급 과잉량은 인근지역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골재의 수급전망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성수기에는 수도권 일부 및 부산·경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